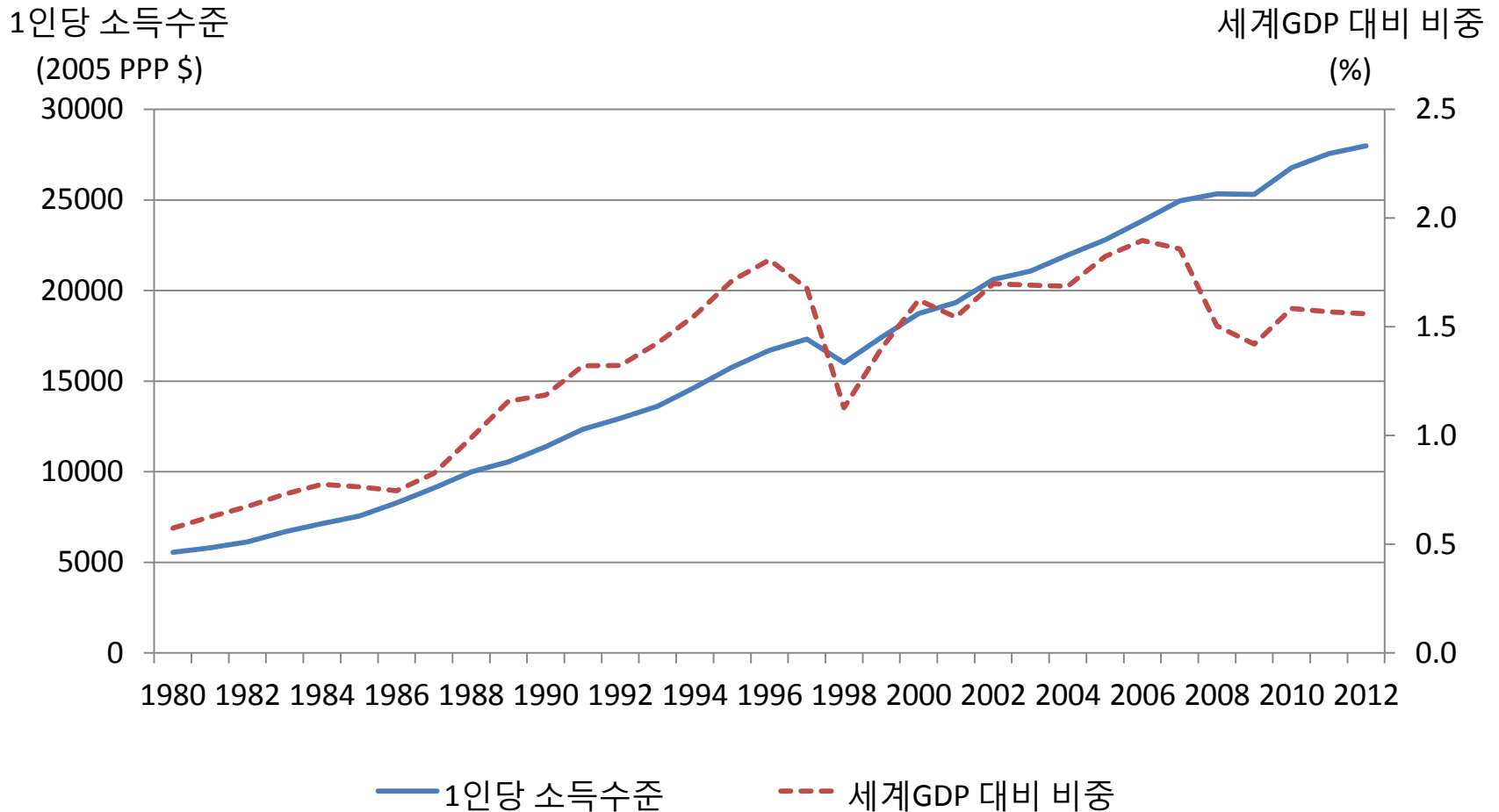


# 한국경제 혁신 위한 정책방안; 토론자료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 경제추격연구소장

# 한국의 세계전체 GDP 에서의 비중: IMF 이후 2%밑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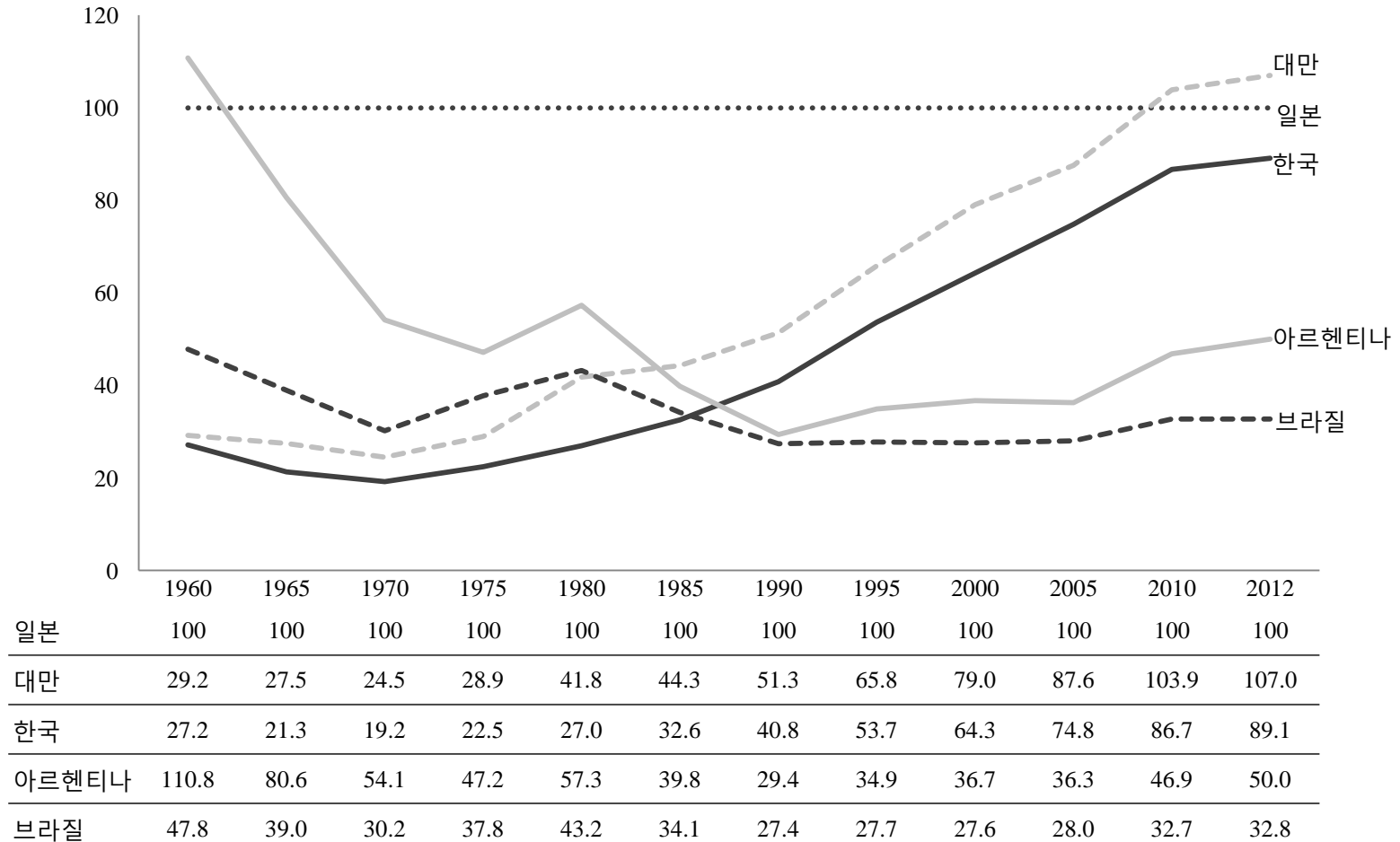
주: 한국의 세계대비 국내총생산 비중은 경상가격으로 계산됨.

# 각국의 일본 대비 소득 수준

## 대만은 이미 일본 추월; 한국은 몇년째 일본 90% 수준 못넘어

일본의 1인당 소득수준

대비 % (PPP \$)



# 2012년 평균추격지수 : 주요 15개국

국가	평균추격지수		소득수준추격지수			경제규모추격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2005 PPP \$)	지수	순위	GDP 비중 (%)	지수	순위
미국	100	1	45,297	51	5	22.7	100	1
일본	47	4	31,412	35	20	8.3	37	3
독일	39	6	33,875	38	15	4.8	21	4
중국	39	7	7,933	8	71	11.5	51	2
영국	34	11	32,038	35	19	3.5	15	6
프랑스	33	13	30,922	34	22	3.7	16	5
이탈리아	27	18	26,118	29	27	2.8	12	3
대만	27	20	33,604	37	16	0.7	3	27
<b>대한민국</b>	<b>25</b>	<b>24</b>	<b>27,991</b>	<b>31</b>	<b>24</b>	<b>1.6</b>	<b>7</b>	<b>15</b>
러시아	19	31	15,347	16	46	2.8	12	8
브라질	16	38	10,292	11	61	3.2	14	7
멕시코	14	42	13,460	14	52	1.6	7	14
말레이시아	11	49	14,713	16	47	0.4	2	35
남아공	8	62	9,883	10	62	0.5	2	29
인도네시아	6	71	4,313	4	83	1.2	5	16

주: 순위는 100 개국 내에서의 순위를 의미함.

# 왜 한국의 실질소득은 대만보다 못하나: 명목 일인GDP는 높으면서

- 답: 물가가 너무 높아서: PPP지수 불리
- -> 첫째 시사점:
- 경제정책: 물가 하향 안정에 신경써야
- 즉, 몇 개의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
  - 1) 수출 (성장율) 중심에서 고용(율)중심으로
  - 2)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그런데 아직도 비효율적 생산자 보호 정책 남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

## 추격지수와 추격속도 지수

- **추격지수(Index of average Catch-up)**는 특정 국가의 절대적인 경제 추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는 소득수준(income level)과 경제 규모(size) 라는 두 가지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를 평균
  - **소득수준추격지수(Level catch-up)**는 특정 국가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와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100만점의 점수임
  - **경제규모추격지수(Size catch-up)**는 특정 국가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가장 큰 나라 대비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 **추격속도지수(Index of average Catch-up speed)**는 특정 국가의 상대적인 경제추격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 역시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라는 두 측면의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를 평균
  - **소득수준 추격속도지수(Level catch-up speed)**는 특정국의 1인당 GDP가 모든 나라 평균 대비 얼마나 빨리/늦게 증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로 보여주는 지수
  - **경제규모 추격속도지수(Size catch-up speed)**는 각국의 GDP 비중이 다른 나라들 평균대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지수

## 2012년 평균추격속도지수 : 한국과 주요 15개국

국가	평균추격속도지수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성장률 (%)	지수	순위	GDP 비중 성장률 (%)	지수	순위
중국	78	4	7.17	86	4	10.06	53	11
인도네시아	60	25	4.73	70	14	1.77	36	50
러시아	60	27	3.75	64	24	4.77	42	31
말레이시아	58	29	3.87	65	23	3.34	39	43
미국	51	41	2.05	53	40	2.51	38	47
멕시코	49	46	2.39	55	34	-0.57	31	58
일본	47	51	2.18	54	36	-0.91	31	60
<b>대한민국</b>	<b>46</b>	<b>58</b>	<b>1.58</b>	<b>50</b>	<b>51</b>	<b>-0.65</b>	<b>31</b>	<b>59</b>
대만	44	61	0.93	46	58	0.16	33	55
남아공	38	72	1.33	48	54	-6.35	20	75
영국	37	74	-0.64	36	79	-1.50	29	61
독일	35	77	0.73	45	63	-7.43	17	79
프랑스	30	81	-0.49	37	77	-7.99	16	83
브라질	28	83	0.00	40	73	-10.75	10	90
이탈리아	19	92	-2.68	23	91	-10.11	12	88

주: 순위는 100 개국 내에서의 순위를 의미함.

## 2012년도 추격지수 결과

- 한국의 경제추격지수:  
01년 21점에서 07년 25점으로 꾸준히 상승 후,  
11년 25점으로 정체; 12년도 25점에서 정체;  
순위는 01년 30등, 2008년 26위, 2011년 25위, 2012년 24위.
- 추격속도지수는 2002년 71점 세계 11위 이후 일관되게 추락하여  
2008년 10점 99위의 최저순위를 기록한 후 10년은 51점 23위로 상승  
이후 다시 2012년 46점 (58위)으로 하락
- 한국의 추격속도지수가 일본에 비해 역전 당함;  
즉, 일인당소득 수준의 상승과 경제규모 증가 속도를 평균한 추격속도  
지수에서 11년에는 한국이 일본에 앞섰으나 12년에는 역전;  
한국: 추격속도지수: 12년 46점 58위; 11년 38점 62위  
일본: 추격속도지수: 12년 47점 51위; 11년 28점 86위  
-> 일인소득증가율: 일 2.18% 한 1.58%  
경제규모증가율 일 -0.91% 한 -0.65%



# 4만불 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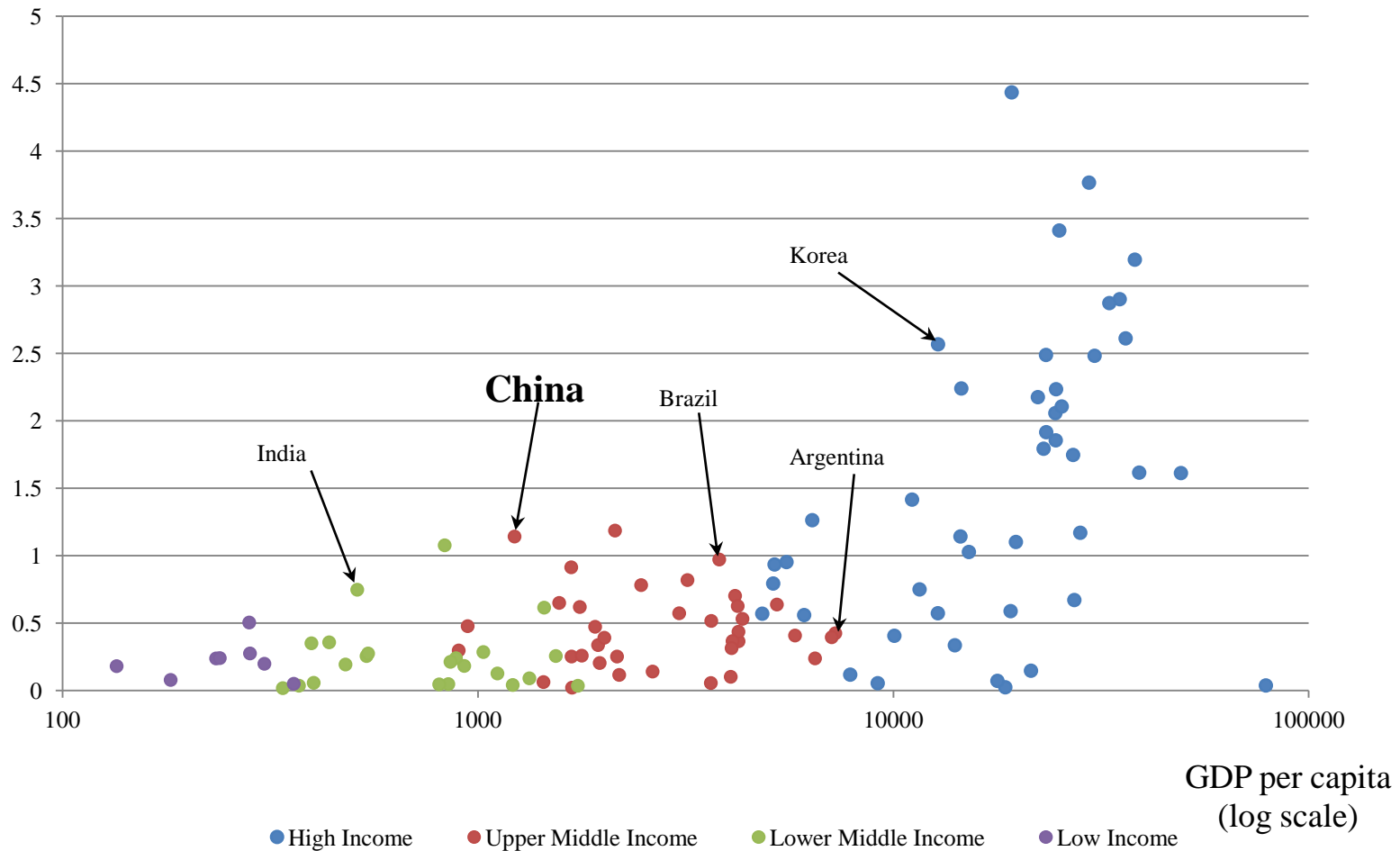
소득수준 추격의 완성 위해  
지속적 혁신 필요:

혁신체제를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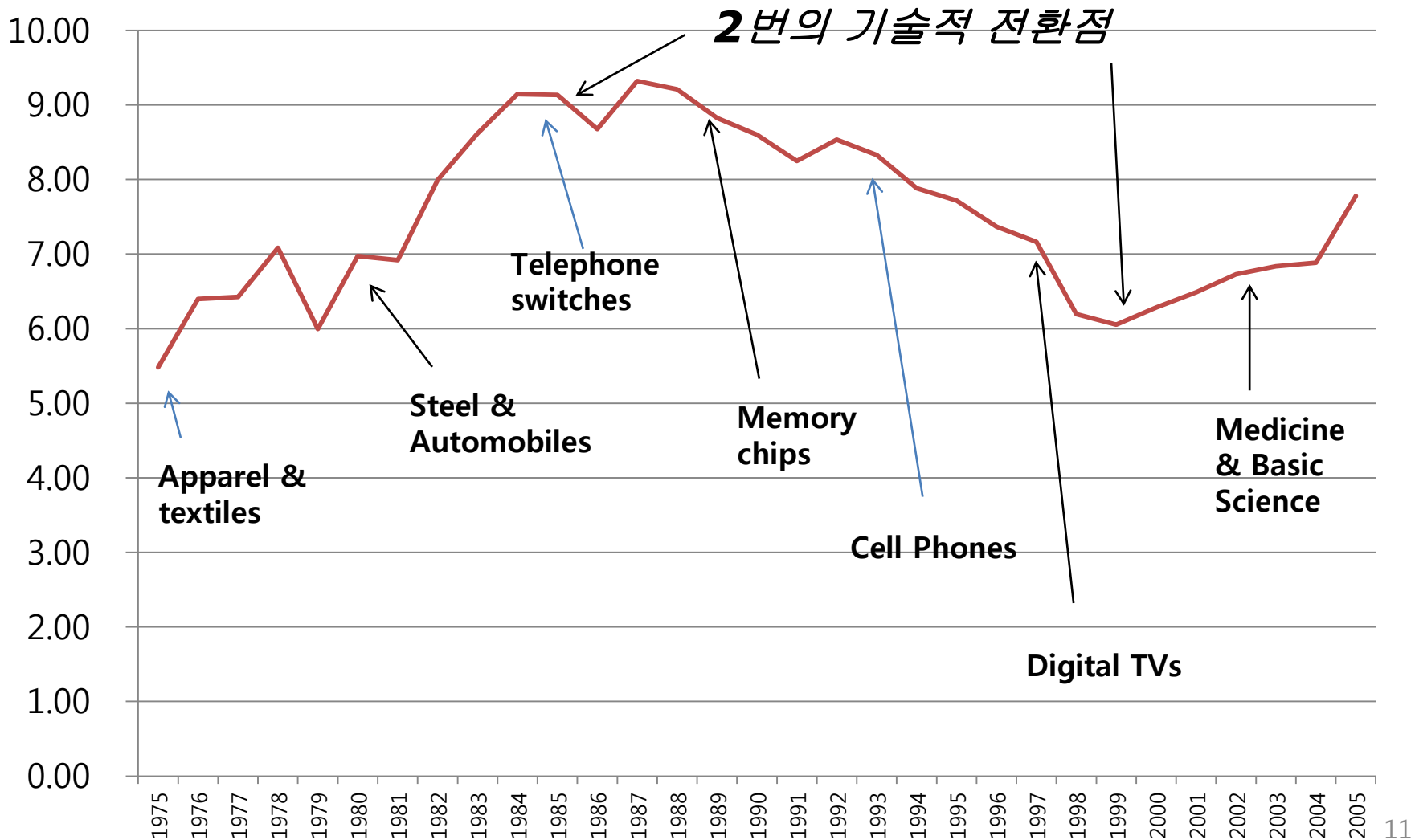
# R&D/GDP ratios in China, Korea, India:

양적 R&D는 많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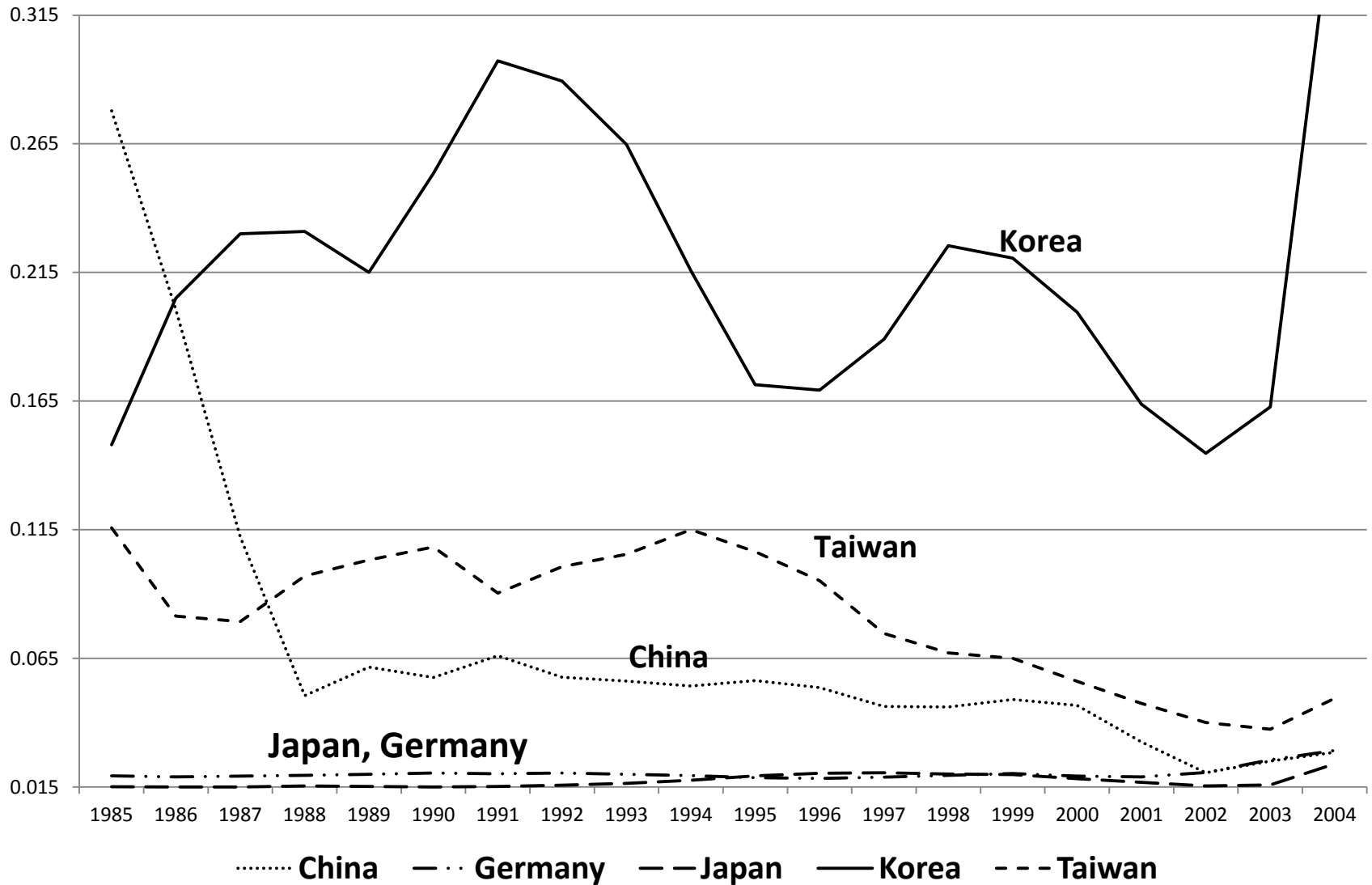
R&D expenditure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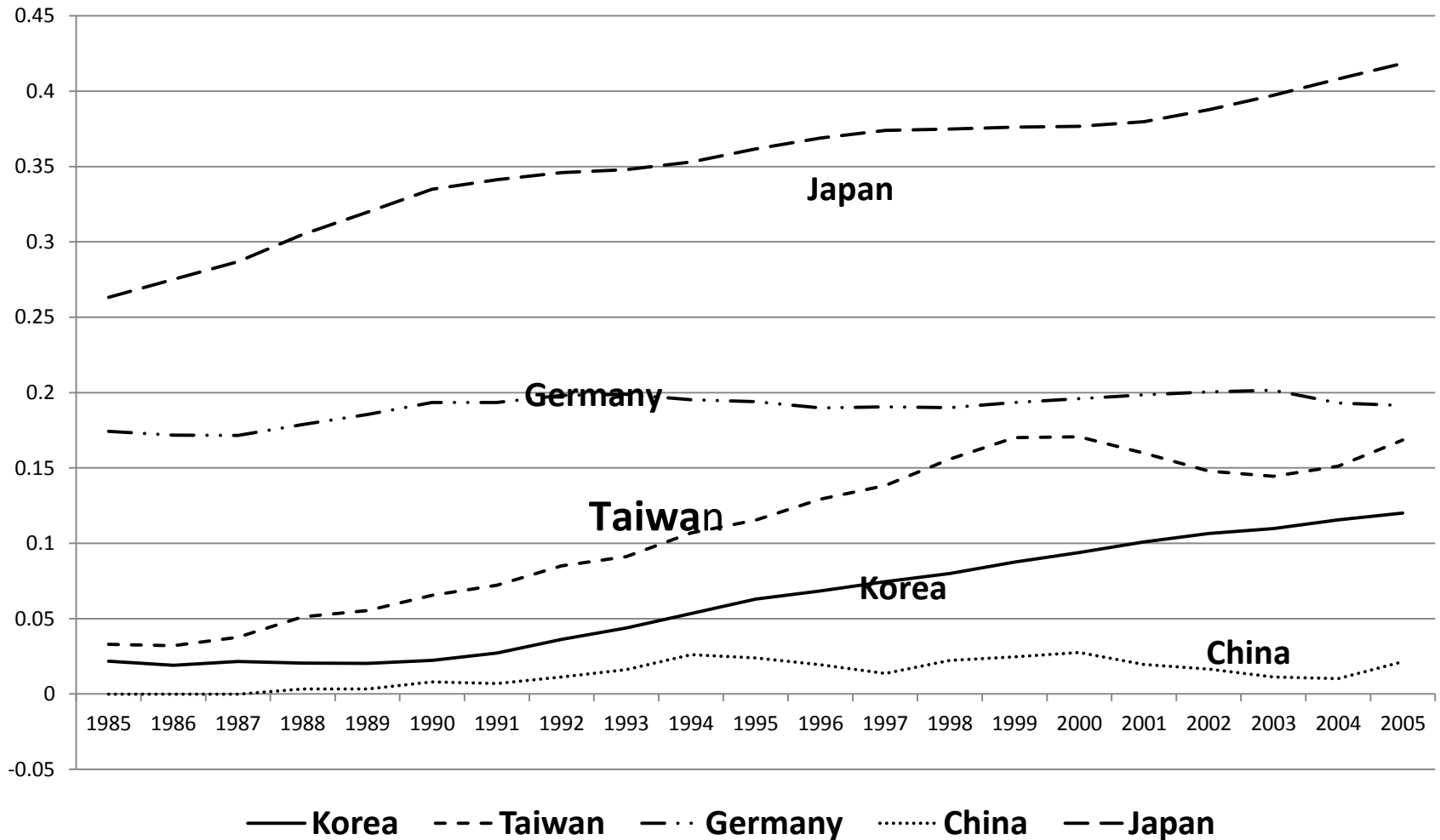
한국의 Detour = 2개의 기술적 전환점 통과:  
 80중반 1차추격형 전환점 (수명 짧은 분야로 특화)  
 2000년 이후, 선진국형 전환점 (수명 긴분야로 진입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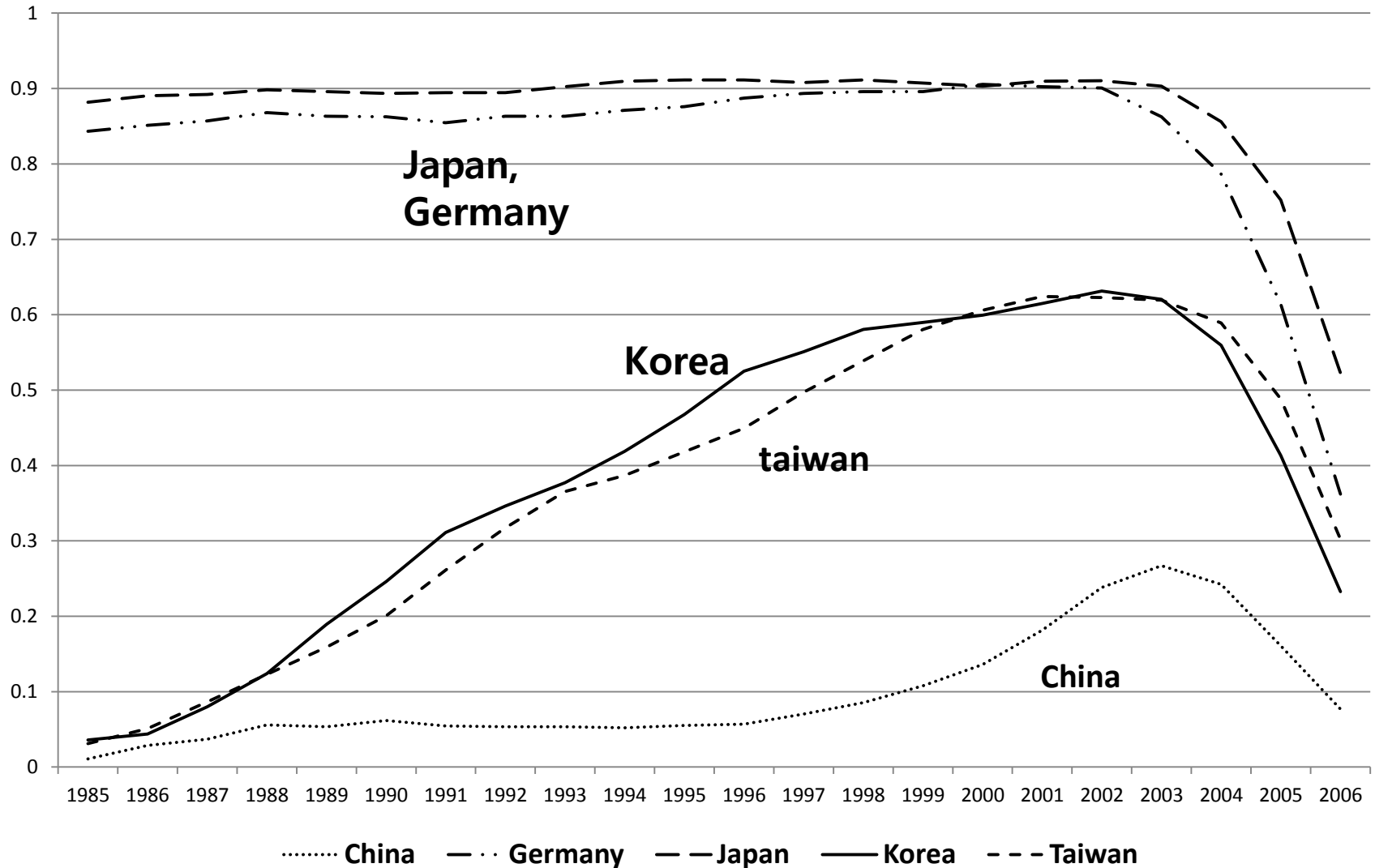
# <혁신주체의 집중도 HH Index : 한국 과다 높음 3 year moving average>



한국, 지식생산의 내재화 는 아직 낮음,  
대기업중심성; 대만보다도 낮음  
= localization of knowledge creation>



# Technological Diversification 기술적다각화는 일본에 처짐: No of sectors with patents/417



## 혁신체제 면에서 한국이 개선할 점: 국제비교 요약

한국은 그동안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 차별되는 영역  
즉 기술주기가 짧은 분야에 특화 및 계속 진입함으로써  
소득 수준에서의 추격을 상당히 달성.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식생산의 내재화 및 기술다각화도 진행

그러나 이제 추격의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반대로  
기술주기가 긴 분야로도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완성:  
장기적으로 계속 진입시도 필요: 중기적으로 IT와 융합분야로;

그 외, 지식생산의 내재화율, 및 기술다각화 수준도 더 높힐 필  
요 있고, 과다한 집중도도 개선 필요;

이런 전환은 기존의 소수 대기업 주도의 혁신체제로는 어려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 필요 (동반성장, 창조경제)

# 향후 한국의 혁신체제의 과제:

숨페터: 혁신 = new combination이라고 정의

창조경제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결합하면 그 것이 창조

- 1) 한국경제의 그동안의 성장엔진 즉 잘나가는 부문을 (가령 대기업부문) 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부분과 (중소기업) 새로운 관계하에 놓이도록 새로운 결합을 해 주면 되는 것 (기술적 집중도 개선)
- 2)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사간의 대타협이라는 노사의 new combination을 통해 노동시간은 줄이되 (생산성은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혁신 내재화)
- 3)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 융합함으로써 (fusion of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new combination이 필요 (기술다각화): IT와 BT, NT등 결합분야:  
(긴 기술수명 분야 진출 전단계의 이행 전략)

창조경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그 수단은 new combination

3가지 혁신 정책 방안 = 세가지 new combination

대-중소기업간, 노사간, 다른 기술 (지식분야) 간 3 new combination. 16



**감사합니다**

**[www.keunlee.com](http://www.keunlee.com)**

**[www.catch-up.org](http://www.catch-up.org)**

**(추격지수 다운)**